



치료 앞서 환경적 요인·체질 개선 우선돼야



반려견의 슬개골탈구

한번 진행되면 자연적으로 회복안돼 절룩거리기 반복·고통호소시 병원으로 체중조절·적당한 운동으로 근육강화

병원으로 전화가 왔다. “원장님, 상추가 뒷다리에 힘이 없고 자주 주저 앉을려고 해요.”

1년 3개월된 포메라니언인 상추는 슬개골 탈구였다. 양쪽 슬개골이 모두 안쪽으로 빠지는 상태였고, 슬개골탈구 2기로 진단됐다. 슬개골(patella) 또는 무릎뼈는 무릎관절의 앞부분을 덮고 있는 뼈로 관절을 형성하며, 뒷다리를 뻗게 하는 힘줄의 가운데에 있다. 대다수의 포유동물과 일부 조류 및 파충류에 있다.

슬개골 탈구는 소형견에게는 흔히 볼 수 있는 관절질환으로 인간이 만들어낸 유전적 질환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 지금의 소형견들 대부분은 실내에서 키울 수 있고 팔 안에 안고 다닐 수 있는 개들의 유행으로 짧은 세월동안 인간의 교외적인 교배(특히 근친교배)를 통해 급속히 작아졌다. 그 과정에서 근육과 골격이 자연스럽게 맞아들어가 지 않는다는 것이다. 슬개골 탈구는 일반인의 눈

에는 비정상적인 관절운동이 잘 관찰되지 않아 내 강아지에게 슬개골 탈구가 있는지 모르고 생활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대부분은 강아지의 청년기에 초기 증상이 나타나는데 뒷다리를 잠시 절다가 금방 사라지고 뒷다리를 뒤로 뻗는 행위를 반복하며 진행이 된다. 어떠한 경우에는 자지러지게 비명을 지르고 고통을 호소하지만 며칠이 경과하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한다. 그렇다면 발을 절지 않고 고통을 호소하지 않으면 괜찮아지는 걸까? 불행히도 슬개골 탈구는 한번 진행이 되면 자연적으로 정상으로 회복되지는 않는다.

슬개골 탈구는 진행단계에 따라서 4단계로 구분된다. 1기는 슬개골을 손가락으로 살짝 밀었을 때 슬개골이 관절 밖으로 빠지는 단계이다. 2기는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할 때 슬개골이 관절 밖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단계이다. 3기는 대부분의 경우에 빠져있다. 손가락으로 다시 밀어 넣었을 때 위치로 들어가지지만 손가락을 뺐을 때 다시 빠지는 단계이다. 4기는 손가락으로 밀어 넣어도 들어가지 않으며 골변형이 심하게 오는 단계이다.

1기에서는 가끔 발을 저는 등 증상이 미미하나 2-3기에 들어서는 슬개골이 자주 빠지고 들어가는 것이 반복됨으로 관절염이 생기고 통증을 느끼는 일이 잦아진다. 3-4기에는 관절염이 심해질 수 있고 고관절에 문제를 유발시키며 종아리뼈의 변형과 허벅지 근육의 위축, 그리고 때때로 전십자인대의 파열로 진행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강아지의 반복되는 절룩거리거나 고통의 호소는 무심코 넘어가서는 안되며 반드시 동물병원을 찾아 상담과 치료를 해야 한다.

치료에는 재활치료와 외과적 수술이 있다. 치료의 방법은 슬개골 탈구의 정도와 합병증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수의학의 전반적인 발전으로 최근 들어 치료방법들이 더욱 발전되고 다양해졌다. 내 강아지의 주치의와 상담하고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자.

내 강아지에게 슬개골 탈구가 있다면 몇 기를 떠나 환경적 요인과 강아지의 체질을 개선하는 것은 치료에 앞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생활환경과 체질을 개선해주는 것만으로도 나의 강아지는 그 전에 비해 훨씬 만족해 할 것이다.

첫째, 체중조절을 통해 관절에 부담을 주는 하중을 줄이자. 둘째,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자. 방바닥에 놀이매트를 깔고, 발바닥 털을 자주 깎아주자. 셋째, 소파나 침대에서 뛰어내리지 않도록 하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을 방지하자. 넷째, 적당한 운동으로 허벅지 근육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자. 단 심한 운동은 삼가도록 하며 급격한 몸의 회전을 필요로 하는 놀이는 삼가는게 좋다. 운동시간을 조금씩 늘리는 방식으로 하되 정기적으로 허벅지 근육의 발달정도를 체크하자. 요즘은 무릎에 하중부담을 줄이고 허벅지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는 수중러닝머신을 이용한 재활도 시도되고 있어 근력운동의 부작용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도 있다.



강성진 가람동물병원장

영화觀

활짝 설렜어 난

얼마 전 넷플릭스 오리지널 무비 '내가 사랑했던 모든 남자들에게'를 보았다. 워낙 하이틴 무비를 좋아하는 취향인 데다가 SNS 유저들이 꽤 많이 언급했던 작품이어서 넷플릭스 서비스에 가입하면서부터 꼭 봐야지 생각했던 작품이었다. 저런, 또 당하고야 말았다. 가벼운 마음으로 과거를 와그작 씹으며 시작했는데 상대들의 진지한 심중에 화들짝 놀라며 끝나버렸다. 남은 과거도 없었고 멀쩡한 나도 없었다. 아니 물아일체에도 연령제한이 있을 텐데 나이 마흔이 넘어서 이런 꼴을 당하다니. 언제나 찾아오는 로코후의 비극이었다. 마음이 불량을 량해지고 웃음이 비죽거리며 새이 나오고 외국 고등학교의 캐비닛이 또! 가지고 싶어 진 것이다. 망신스럽지만 당당한 행복의 기분이 나를 감싸 안았다.



영화 '퀵카로 살아남는 법'의 한 장면.

“탄산 같은 하이틴 로맨스”

'내가 사랑했던 모든 남자들에게'는 어린 시절부터 짝사랑의 마음을 몰래 편지로만 남겨두었던 한국계 여학생 라라 진의 연애 소동극이다. 비밀의 상자에 감춰두었던 다섯 통의 러브레터가 짝사랑의 상대들에게 느닷없이 발송되면서 생기는 일들을 경쾌하게 그린 작품으로 제니 한의 원작 소설을 수잔 존슨 감독이 영화화했다. 국내는 물론 전 세계 하이틴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은 이 작품은 2019년 제28회 MTV 영화&TV 어워즈에서 최고의 작품상 후보에 올랐으며 남자 주인공 노아 샌티네오에게 주목할만한 배우상과 최고의 키스상을 안긴 바 있다. 사춘기를 살짝 넘어선 주인공들에게 찾아온 진짜 감정과 가짜 역할 놀이의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섬세한 터치로 그려낸 이 작품은 연애편지라는 아날로그적인 감성과 SNS세대의 연애 감수성을 흥미롭게 보여주는 작품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어떤 장르도 감히 따라할 수 없는 하이틴 로맨스 특유의 설렘을 청량하게 담아내며 후속편이 나올 정도로 큰 사랑을 받았다.

어쩌면 상대의 사랑은 연습생 시절의 맘과 눈물을 가득 담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다. 그 자체로도 충분한 완성이지만 조금 더해보고 싶고, 어제의 나보다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하루 온종일을 머릿속에서, 가슴속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성실하고 정직한 사랑 말이다. 하이틴 로맨스 장르물은 이 투명함 때문에 저평가받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시대를 막론하고 이 장르만큼 솔직하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한 장르가 있었을까 싶다. 그것이 바로 오랫동안 장수하는 이 장르물의 매력이고 장점인데 설익은 애들 얘기로 폄하당하거나 비평적으로 등한시된 부분들은 좀 아쉽다.

개인적으로 재미와 완성도를 갖춘 하이틴 장르물을 꼽아보자면 로맨스의 달달함은 약하지만 상대들의 정글을 예리한 우화로 그려낸 코미디 '퀵카로 살아남는 법'을 첫 손에 꼽을 수 있겠다. 주연인 린제이 로한, 레이첼 맥아담스, 아만다 사이프리트 등 할리우드 스타들의 상큼한 매력이 잘 살아있는 작품이기도 하다. 1999년작 '사랑보다 아름다운 유혹'은 수없이 리메이킹된 '위험한 관계'의 하이틴 버전으로 라이언 펠립, 사라 미워즈에서 최고의 작품상 후보에 올랐으며 남자 주인공 노아 샌티네오에게 주목할만한 배우상과 최고의 키스상을 안긴 바 있다. 사춘기를 살짝 넘어선 주인공들에게 찾아온 진짜 감정과 가짜 역할 놀이의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섬세한 터치로 그려낸 이 작품은 연애편지라는 아날로그적인 감성과 SNS세대의 연애 감수성을 흥미롭게 보여주는 작품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어떤 장르도 감히 따라할 수 없는 하이틴 로맨스 특유의 설렘을 청량하게 담아내며 후속편이 나올 정도로 큰 사랑을 받았다.

<김명현·독립영화 스튜디오 무브먼트 대표>

지혜로운 코로나19극복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실천하는 제주도민 아름다운 제주 지킬 수 있습니다.

JEJU PEACE CONCERT
“청정 제주 우리는 지킬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평화콘서트

2020년 11월 2일(월) 19:00 제주아트센터

無관중 공연 제주 MBC 온라인 생중계

유튜브 검색 **와랑와랑 제주**

주최 주관 **사단법인 제주종교지도자협의회**
Jeju Religious Leaders Council

후원 **Jeju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